



21세기를 주도하는 환태평양 중추 도시, 포항

포항시는 한반도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해맞이의 고장”으로 국가 기간산업과 세계적 연구시설을 갖춘 국가 경제 중심축의 첨단기술도시로 우뚝서고 있다.

포항 지역의 산업경제

포항시는 세계 제일의 철강회사인 POSCO가 소재하고 있는 철강도시이며, 포항공과대학과 방사광가속기, 포항산업과학연구원이 함께 자리잡아 21세기 첨단미래산업을 열어가고 있는 과학기술도시이다. 현재 건설중인 영일만신항과 테크노파크는 21세기 환태평양시대의 중추도시로의 한 차원 높은 도약을 하고 있는 도시이다.

철강도시로도 잘 알려진 포항은 기존에 POSCO를 포함해 6곳의 국가 산업단지가 있는데 총 244개 업체가 입주하여 229개사가 가동되고 있다. 이는 포항지역 내에 총 34,356개 업체에 156,361명의 근로자와 비교한다면 불과 7%의 업체밖에 되지 않지만 근로자수로 보면 포항지역 산업근로자의 16%에 달해 그 규모를 짐작케 한다.

단지 입주업체의 조업 가동율은 93%에 달해 타 지역 공업단지 업체 가동율보다 상당히 높은 수치이다. 공업단지는 현재 건설중인 2개 단지를 제외하고 제 1, 2, 3 국가산업단지 및 청림지구, 농공단지로 구성되어 있다.

포항지역내 산업구조는 제조업이 2,144개 업체에 37,409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어,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이 가장 많았고, 다음은 도소매업으로 9,963개 업체에 26,021명의 근로자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

규모별로는 5인 미만 업체가 29,910개인 84.7%로 가장 많았으나 근로자는 33.8%에 불과했다. 5인이상 300인미만의 중소기업 사업장은 4,415개 업체로 전체의 12.8%로 근로자는 49.7%인 77,691명으로 업체수에 비해 많은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다. 그리고 포항지역 경제의 선두를 달리고 있는 300인이상 대기업은 31개 업체였으나, 전체 16.5%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알고 있는 철강도시 포항은 6월말 현재 재해율이 0.40으로 전체 재해율 0.42보다 낮게 나타났다는 것이 눈에 띈다. 특히, 대한산업안전협회 포항지회에서 관리하는 기업체의 평균재해율이 6월말 현재 0.29%를 보이고 있어 상당한 대조를 보이며 민간 재해예방단체의 역할의 중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지역의 산업사회의 숨은 일꾼 안전인

《홍화공업(주)포항공장 임규만 대리》

창립 40년이라는 역사가 숨쉬는 홍화공업(주)포항공장은 교량 스틸박스를 전문으로 제작하는 업체로 이 부분 국내 최고의 기업이다. 이곳에서 안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임규만 대리를 만났다.

부경대학교 안전공학과를 졸업하고 96년 1월에 이곳에서 안전업무를 시작한 임규만 대리는 2003년 안전공단 이사장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고, 2004년에는 홍화공업(주)포항공장이 노동부장관으로부터 단체표창에 받는 등 안전인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온 인물이다.

안전은 성실이며, 나 자신이 성실할 때 근로자도 따라준다고 알고 있는 그는 안전관리자로서 바른 자세를 잃지 않는다. 이런 임규만 대리는 신입사원 시절, 업종 특성상 사소한 사고가 많이 발생하여 예방안전이 아닌 사후 처리에 대부분의 시간을 소비하여 회의를 느낀 적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안전의 주목적은 인간존중의 이념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니만큼, 조금 더 열심히 하면 예방안전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업무에 임해 지금은 근로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사명감까지 생겼다고 한다.

이렇게 자신의 소신을 갖고 있는 안전활동을 펼치기까지 학교에서는 이론을 배우고 체계를 정립하였고 이곳 현장에서는 실무를 통해 자신만의 안전관리 방향을 설정하였다. 이에 경험이 풍부한 김홍문 부장을 자신을 이 자리에 있게 한 또 다른 선생님이라고 소개한다.

그 때부터 임규만 대리는 철강업종이라는 특성이 있지만 예방관리를 위해 근로자의 의식개혁이 먼저라고 생각하고 의식 개혁을 위한 안전교육이라는 카드를 제일 먼저 꺼냈다.

당시 강제적인 일괄교육으로는 교육의 효과를 찾아 볼 수 없는 환경에서 오히려 생산 차질을 초래하기까지도 하였다. 이에 임규만 대리는 근로자에게 의식을 바꾸는 교육의 변화를 꾀하였다. 한달중 10일을 교육하는 자율안전교육이 바로 그것인데, 근로자의 시간대에 맞게 자율적으로 교육에 참여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새벽이나 야간교육도 마다하지 않는다.

이렇게 4년이 지나면서 근로자에게서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고, 지금은 근로자들로부터 교육의 테마를 선정받기도 하는 등 요구사항이 많아졌다고 한다. 이제는 한단계 수준을 올리는 안전교육으로 근로자가 직접 강사가 되는 안전교육시스템으로의 변화를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홍화공업(주)포항공장에서 임규만 대리는 자신의 색깔을 갖고 안전의 그림을 그려나간다.



▲ 임규만 대리

이에 임규만 대리는 자신이 그린 그림 속에 무재해 3배가 그려져 있지만, 한번도 달성하지 못한 무재해 5배라는 소재를 그림속에 넣겠다는 각오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노·사가 따로 없이 “안전을 공공의 업무”로 인식하고 함께 참여해야 한다고 말한다.

끝으로, 임규만 대리는 포항지역에는 기간산업으로 철강산업이 많은 관계로 사고의 강도율도 높아 안전업무를 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따르나, 다른 지역과 같은 안전지원을 받고 있다며, 안전제일이라는 말처럼 우리 안전을 하는 안전인을 대우해 줄 수 있는 기업문화를 함께 만들어 나가자는 말도 잊지 않는다.

《INSTEEL (주)포항공장 윤문현 환경안전과장》

지난 반세기 동안 세계 최고의 철강회사와 국가기간 산업체로서 기초산업의 근간을 세우며, 철강산업인재의 산실로 새로운 신화를 창조하고 있는 INSTEEL(주)포항공장을 찾았다. 레일H빔, 철근롤, 광산기계, 중기 부품을 생산하는 현장에서 윤문현 환경안전과장을 만났다.

2000년도 회사에서 안전공로상을 수상하고, 2001년도에는 모범관리자상을 수상한 윤문현 환경안전과장은 77년 6월 현장에 입사한 공고출신이다. 그러나 자기 개발에 게을리하지 않은 그는 주경야독을 하면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였고, 산업안전기사자격증을 독학으로 취득하여 INSTEEL(주)포항공장의 안전관리자가 되었다.

안전은 심리전이라고 할 만큼 근로자의 심리를 잘 알고 있는 그는 안전관리에도 근로자의 심리를 십분 활용하며, 안전에 관한 냉정하고, 엄격하다. 한마디로 기본 원리·원칙을 강조하고 잘못된 것은 즉시 시정하는 그는 처음에는 근로자들에게 좋지 않은 눈길을 받기도 하였으나, 안전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근로자들이 증가하면서,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과장의 행동을 이해하고 이제는 수용하는 분위기로 바뀌었다.

이와 관련하여 윤문현 환경안전과장은 “안전을 무시하고 작업에 열심히 임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내가 다치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기업경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반문하며,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보람도 안전이 뒷받침 될 때만이 얻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안전에 관해 누구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갖는 그는 전 사원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실질적인 안전교육에 역점을 두고 세계화에 발맞춰 사내체질에 적합한 안전경영시스템 도입을 위해 KOSHA 18001 인증 준비작업에 들어간다.

이외에도 분기별로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여 결과



▲ 윤문현 환경안전과장

지역 안전기행

에 따라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부서별 안전관리 항목을 설정해 주고, 부서 체질에 맞게 자체 계획 수립·시행을 통해 부서간 안전경쟁을 통하여 자율안전활동이 뿌리내리고 있다.

이렇게 윤문현 환경안전과장은 INSTEEL(주)포항공장에서 안전이라는 작품을 만들어 가고 있고, 그 작품을 통해 몇년 후면 철강업체 중 최고의 자리를 피할 것이라는 당찬 포부도 밝힌다. 항공기가 이륙하기 위해서 많은 추진력이 필요한 것처럼, 지금의 INSTEEL(주)포항공장도 하늘을 날기 위한 추진단계라고 비유한다.

평소 안전 최우선을 강조하는 포항공장장이 투철한 경영철학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공장이 되도록 환경안전팀에 힘을 실어주고 있어, INSTEEL(주)포항공장이 철강업체에서 가장 먼저 무재해, 무사고의 깃발을 세울 것이라고 윤문현 환경안전과장은 말한다.

끝으로, 안전인이라면 항상 자만하지 말고 모범을 보이면서 늘 배우려는 자세로 자기 개발에도 적극성을 보여야 할 것이라며, 말을 맺는다.

재난관리시스템

포항지역은 바다와 인접하고 있어 여름철 피서객이 많이 밀려오는 관광지이기도 하다. 그러나 포항시는 시민들이 119수상구조대를 운영하여 수상구조활동과 응급처치, 해변순찰 및 통제선관리 등 수변감시활동을 비롯해 미아찾기 홍보방송 등 안전계도를 하는 등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 특히 미래의 꿈나무인 어린이들에게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안전지킴이 리더십캠프 소방체험 행사를 개최해 초·중학교 학생, 학부모대표, 안전담당교사 등 약 400명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 소화기이용 화재진압체험, 소방차이용 방수체험, 소방퀴즈풀기 등의 이벤트 행사도 함께 펼치고 있다.

〈최종덕기자〉

